

“내 시간을 돌려줘”



학습시간 섷다운 프로젝트

‘학습시간 섷다운 프로젝트’는 무한경쟁교육 속에서 사라져 버린 학생들의 시간, 휴식, 다양한 삶을 되찾기 위한 활동입니다.

학습시간 섷다운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학교, 학원의 학습시간 광풍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만들기 위해 행동합니다.

‘학습시간 섷다운을 위한 서명운동’ 및 활동들에 함께해주세요! 더 많은 학생, 시민들의 힘이 모일 때 학습시간 섷다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 서명운동은 사이트(studyoff.org)에서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다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함께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거리캠페인, 퍼포먼스, 행진, 토론회 등 다양한 행동들에 참여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아수나로 카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sunaro.or.kr



studyoff.org

사라진 학생들의 시간을 찾습니다.

가져가신 분 **꼭** 돌려주세요.

학습시간 섷다운 프로젝트

사라진 학생들의 시간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초중고등학생 60%는 하루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수면시간도 고등학생이 5시간47분으로 미국국립수면재단의 청소년 권장 수면시간 9시간 30분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마저도 평균 수면시간은 조사기간 1년 만에 1시간이 줄어드는 등 학생들이 쉬고, 놀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범인은 학습시간

학생들의 시간은 '학습'에 빼앗긴 지 오래입니다. 학생들의 하루는 직장인보다도 이른 새벽 등교로 시작됩니다. 학교수업 다 들으면 해가 지고, 해가 지면 방과후학교/보충수업/야자에 학원/과외/인터넷강의가 기다립니다. 학생들에게 허락된 자유시간이라고는 기껏해야 찜찜이 나는 잠깐의 시간들뿐입니다. 그마저도 공부 부담과 불안감, 공부 안 하고 '딴짓'이나 한다는 주변의 눈치 속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과도한 학습시간, 규제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학습시간을 줄이고, 저녁이나 휴일에는 학생들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적을 위한 학습만 할 게 아니라 쉬고, 놀고, 여가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잠까지 줄여가며 공부하는 게 대단한 부지런함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분위기에서 혼자 알아서 학습시간 경쟁을 탈출하기는 어렵습니다. 폭주하는 학습시간 경쟁이 멈추도록 사회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내 시간을 돌려줘 학습시간 섷다운 5대요구

1. 9시 등교! 3시 하교! 하루 6시간 학습!

달 보며 학교 갔다, 달 보며 집에 오는 팍팍한 삶... 학교는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걸 주입시키려고 하고 학생들을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 붙잡아둡니다. 무리한 수업시수를 줄여야 합니다.

2. 방학일수 늘리고! 수업일수 줄이고!

3~4주짜리 여름방학, 새해에야 맞이하는 겨울방학... 방학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여유롭게 자기 시간을 가지며 쉬어 갈 수 있는 꼭 필요한 기간입니다. 휴일과 방학을 더 늘려야 합니다.

3. 보충, 야자, 학원 모두! 강제학습 금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도 하고 싶지 않은 보충수업과 학원을 강요당합니다. 학생의 시간은 부모나 교사가 아닌 학생 자신의 것입니다.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학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4. 야간/주말/휴일엔 학생에게도 휴식을!

밤늦게까지 불 켜진 학교/학원의 풍경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슬픈 교육 현실의 상징입니다. 모두가 쉬어야 할 야간, 주말, 휴일만이라도 학교와 학원의 문을 닫아 학생들도 눈치 보지 않고 폭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과잉학습으로 밀어넣는 경쟁 교육 개혁!

입시경쟁교육, 학력·학벌 차별, 무한경쟁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수업을 줄이고 사교육을 규제해도 학생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자신의 시간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경쟁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길어도 너~무 긴

학습시간을 줄이기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입시경쟁교육 속에서 사라져 버린 학생들의 시간·휴식·다양한 삶을 되찾기 위해, 과도한 학습시간 경쟁에 대한 사회적 규제, 입시경쟁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5대요구안' 을 가지고 <학습시간 줄이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삶을 짓누르는 학습시간, 입시경쟁을 바꾸기 위해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 ① studyoff.org 페이지로 접속한다.
- ②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여 서명운동에 참여한다.
- ③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에 학습시간줄이기프로젝트및 서명운동을 알린다.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교육, 사회를 바꾸기 위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함께 행동해요!
 아수나로는 나이가 어리다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부당한 차별, 규제, 억압 등 인권침해에 반대하며 모든 학생·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사회를 만들기위해 직접행동하는 청소년인권단체입니다. 학생,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교육,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수나로에 가입해서 함께 활동해요!
asunaro.or.kr



경고

새벽등교, 강제학습, 야간학습,
과도한 수업량, 사교육 등

**과잉학습은
각종 스트레스 및 수면부족의 원인!**
그래도 방치하시겠습니까?

학습시간 줄이기가 필요합니다!
studyoff.org

사라진 학생들의 시간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초중고등학생 60%는 하루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수면시간도 고등학생이 5시간47분으로 미국국립수면재단의 청소년 권장 수면시간 9시간 30분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마저도 평균 수면시간은 조사기간 1년 만에 1시간이 줄어드는 등 학생들이 쉬고 놀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범인은 학습시간

학생들의 시간은 '학습'에 빼앗긴 지 오래입니다. 학생들의 하루는 직장인보다도 이른 새벽 등교로 시작됩니다. 학교수업 다 들으면 해가 지고, 해가 지면 방과후학교/보충수업/야자에 학원/과외/인터넷강의가 기다립니다. 학생들에게 허락된 자유시간이라고는 기껏해야 찜찜이 나는 잠깐의 시간들뿐입니다. 그마저도 공부 부담과 불안감, 공부 안 하고 '딴짓'이나 한다는 주변의 눈치 속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과도한 학습시간, 규제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학습시간을 줄이고, 저녁이나 휴일에는 학생들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적을 위한 학습만 할 게 아니라 쉬고, 놀고, 여가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잠까지 줄여가며 공부하는 게 대단한 부지런함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분위기에서 혼자 알아서 학습시간 경쟁을 탈출하기는 어렵습니다. 폭주하는 학습시간 경쟁이 멈추도록 사회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내 시간을 돌려줘 학습시간 줄이기를 위한 5대요구

1. 9시 등교! 3시 하교! 하루 6시간 학습!

달 보며 학교 갔다, 달 보며 집에 오는 팍팍한 삶... 학교는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걸 주입시키려고 하고 학생들을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 붙잡아둡니다. 무리한 수업시수를 줄여야 합니다.

2. 방학일수 늘리고! 수업일수 줄이고!

3~4주짜리 여름방학, 새해에야 맞이하는 겨울방학... 방학은 관히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여유롭게 자기 시간을 가지며 쉬어 갈 수 있는 꼭 필요한 기간입니다. 휴일과 방학을 더 늘려야 합니다.

3. 보충, 야자, 학원 모두! 강제학습 금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도 하고 싶지 않은 보충수업과 학원을 강요당합니다. 학생의 시간은 부모나 교사가 아닌 학생 자신의 것입니다.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학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4. 야간/주말/휴일엔 학생에게도 휴식을!

밤늦게까지 불 켜진 학교/학원가의 풍경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슬픈 교육 현실의 상징입니다. 모두가 쉬어야 할 야간, 주말, 휴일만이라도 학교와 학원의 문을 닫아 학생들도 눈치 보지 않고 폭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과잉학습으로 밀어넣는 경쟁 교육 개혁!

입시경쟁교육, 학력·학벌 차별, 무한경쟁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수업을 줄이고 사교육을 규제해도 학생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자신의 시간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경쟁교육을 바꿔야 합니다.